

Review: Design Feisty

K11 Art Mall, Hong Kong

4 Sep – 12 Oct 2014

Editor: Dani Daeun Kim
Photographer: Tae Gyoon Jung

This early September, the works of 14 artists (teams) are being displayed in the bustling metropolis of Hong Kong. *Design Feisty* is the title of the show that is filled with cannonballs of creativity, ready to generate hot discussions and amaze the floating population of Tsim Sha Tsui, where the famous K11 shopping mall celebrates its 5th anniversary. As part of the opening festivities *Design Feisty* accommodated Korean designers and artists who will be available for questions about their work until mid October.



Bori Heo collected designer neck ties, cut them into pieces and refashioned them into a cushiony set of knife and shield. Her creation interprets the modern-day business man as a hunter deriving from the forage, her work a modern rendition of the laws of the jungle.

Jun-Young Kang, who is well-known for his ceramic pieces, presents visually joyful works that embody personal stories from his early childhood, which he spent overseas. The longing and the love for his family found expression in form of a traditional Korean ceramic pot. Love as a universal feeling begins at home, says the artist. He translates relations of utmost importance into simple and yet deep messages.

Wan Lee's work may look like a simple social graph in blue, hanging on a white wall, an abstract visualization, but once

it is off the wall and on the ground, one recognizes what it really is: a foldable kitchen table. It is an experimental piece of visual art that makes its viewer rethink the meaning of design.

Other exhibiting artists include De-bang, Sam-yeol Ahn, Ji-yeon Yoo, Ga-rim Yoon, Esther Lee, Dong-gu Jung, Du-su Choi, Kolon RE;CODE and Kwang-hoon Hyun.

The star of Spaghetti Chandelier, Jin-woo Park, and the leader of Peter Pan Complex, Ji-han Jeon, have formed Gagugasu (transl.: furniture musicians), who performed in the open-air space outside of the shopping mall. The performance was placed in a chaotic installation of furniture where the two artists fit in like pieces of a puzzle and played their electronic sounds, all in all an interpretation of the life of a mod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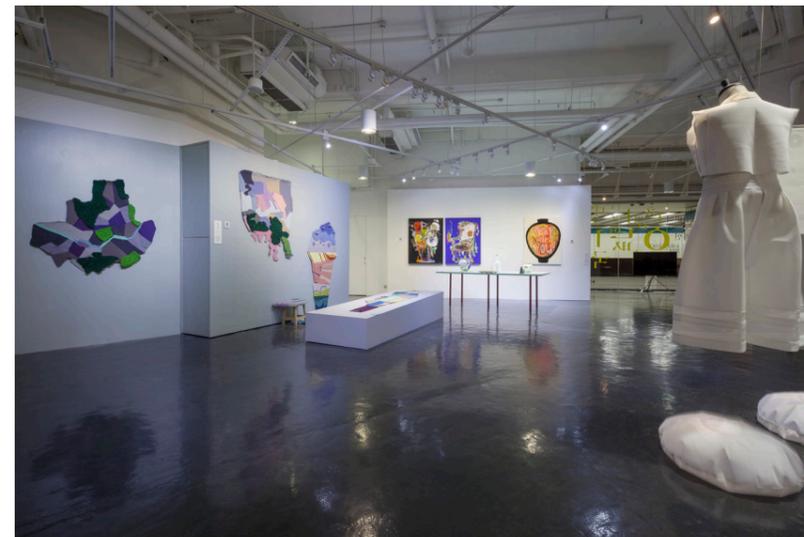
citizen. The cheerful music spread through the opening festivities and let everybody's shoulders bounce along.

Design always requires new generational takes. It is influential also in a visual sense, without meaning that it only exists within the boundaries of visual arts. Today we're living in a world where social exchange and communication are of primary importance. Design plays the role of an omnipresent platform of expression and creativity. It crosses not only the boundaries of art but also the borders of countries as a universal language. In these terms it has found a perfect outlet in *Design Feisty* in Hong Kong where, based on arts and design, communication was executed in perfect synergy. We are left in certainty that the exchange between Hong Kong and Korea will continue on.



허보리 작가는 지인들에게 얻은 명품 브랜드의 넥타이를 과감하게 조각 내 바느질로 이어 붙이고 솜을 넣어 폭신한(?) 칼과 방패로 둔갑시켰다. 양복에 넥타이까지 갖추고 일터로 향하는 현대 남성이 수렵 채집 시대에 사냥하러 나가던 원시인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한 그녀는 작품을 통해 현대 세계의 약육강식을 드러내고자 했다.

도자기 작업으로 잘 알려진 강준영의 작품은 시각적인 즐거움의 이면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녹아 있다. 외국에서 유년기를 보낸 그가 고향에 느끼는 향수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향아리라는 오브제를 통해 표현된다.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의 출발점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작가는 관계의 소중함을 단순하지만 잔잔한 울림을 주는 문장으로 표현하여 사랑과 행복의 메시지를 던진다.



흰 벽에 걸린 이완의 작품은 일견 사회적 그래프를 단순한 파란색 선으로 시각화한 추상 미술처럼 보이지만, 벽에서 떼어 내어 바닥에 설치하는 순간 접이식 밥상임을 알게 된다. 시각 예술 작품과 실용적인 물건의 경계에서 디자인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하는 작품이다.

이들 외에도 디자인방위대, 안상열, 유지연, 윤가림, 이에스더, 정동구, 최두수, 코오롱 RE;CODE, 현광훈 등의 작품이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홍콩 관객을 맞이했다.

'스파게티 상들리에'의 디자이너 박진우와 밴드 피터팬 컴플렉스의 리더인 뮤지션 전지현이 결성한 '가구가수'의 퍼포먼스는 전시장을 벗어나 쇼핑몰의 야외 광장에서 무대를 선보였다. 비정형적으로 설계된 조형물인 '가구' 안에 꼭 끼워 맞춘 퍼즐 조각처럼 자세를 잡고 일렉트로닉 음악을 연주하는 이 '가수'들은 제한된 환경에서 조건에 응대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유한다. 흥건히 흘린 땀만큼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흥겨운 음악에 오프닝에 참석한 이들은 내내 몸을 들썩거렸다.

9월 초, 한국 아티스트 14명(팀)의 작품으로 구성되고 한국 크리에이티브 그룹이 기획한 전시가 뜨거운 날씨만큼 열정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집결한 홍콩에 상륙했다. 전시 제목처럼 '거침없이' 한국의 창조적인 디자인을 보여 줄 이번 전시는 홍콩 관객과 유쾌한 대화를 나눌 만반의 준비를 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침사추이 지역에 위치한 쇼핑몰 K11의 예술재단은 쇼핑센터 개점 5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이 전시를 열었다. 필자는 감사하게도 오프닝에 초대받아 한국 디자인이 발산하는 열기를 직접 느끼고 참여 아티스트로부터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디자이너는 늘 새로운 시대 감각을 요구하며 시각 예술 내에서 크게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보는' 예술의 틀 안에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회적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은 가장 종합적인 표현 수단이자 문화적 창조 영역이며, 예술의 경계는 물론 물리적 국경을 쉽게 넘나들며 세계인의 언어로 통용되고 있다. 디자인과 예술로 국제적인 대화를 시도한 <거침없이 한국디자인>의 홍콩 상륙 작전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도 한국과 홍콩 간의 크리에이티브한 교류가 발전적으로 지속되길 기대한다.

Review: An interview with Ji-sun Kim, Curator of *Design Feisty* & deputy leader of the Korean Office the Hong Kong Design Center

Please tell us about the Hong Kong Design Center and your duties at the Korean office?

The Hong Kong Design Center (HKDC) was established in 2002, as a governmental body to deal with design policies. It serves as a hub for international designers, global companies and national institutions etc. and provides an appropriate platform for exchange. Its main affairs include the annual Design For Asia Awards (DFA), the Business of Design Week (BODW), the Knowledge of Design Week as well as several design incubation programs and a platform called PMQ, which supports small brands with space. The Korean Office at the HKDC helps Korean designers and companies to participate in events like the DFA and BODW. Furthermore, it enables exchange of designers and brands from both countries to communicate and meet.

What made you organize an exhibition with Korean artists in Hong Kong?

Hong Kong is the test board for every brand in the world to launch their products. One of the many treats of this country, where international customers of all kinds are cumulated, is that just as many opportunities are given to the arts and cultural contents. To host a show with Korean artists here has been a personal goal for me since I started curating. With Hong Kong as an amplifier of the so-called Korean Wave in Asia, the general interest and commercial demand naturally increased. And K11 had already been an established name concerning Korean design and art exhibitions. These circumstances allowed me to organize this show.

It is one of the events to complement the 5th anniversary of K11. How did you get in contact with K11?

I frequently visit Hong Kong, and one day I learned about K11's plan to host



a cultural event of international size under the motto 'In Art We Live'. It is an extraordinary venue, for not only the entire mall becomes a gallery, but being connected to the K11 Design Store it is directly fused with a retail point where therefore cultural contents immediately turn into consumption. Especially with the help of the international business connections of the BODW I was able to link into an expansive network.

What were your criteria when selecting the artists?

We were looking for inventive artists from any genre, brave designers who are not afraid to face the logics of today's mass production. And that's easier said than done, because it's hard for fine artists to develop a craftsmanship mentality, for designers to generate creativity while

pondering about cost efficiency and consumer demands. Thus, craftsmanship and creativity combined in one person is rare to come across. The participating artists have diverse backgrounds, not only fine art but also design, film, fashion, typography, product design and music. That's how we came up with the title of the show, *Design Feisty*.

And what is the future holding for you?

While nothing is certain as for now, I would like to organize further Korean design exhibitions in other Asian countries. Also, with the help of the K11 Design Store I could initiate sales of a part of the shown art pieces, and I would like to open the door to high-end select shops and shopping malls in Hong Kong, Singapore and Taiwan.



<거침없이 한국디자인> 전의 큐레이터 겸 홍콩디자인센터 한국사무소 부대표 김지선과의 인터뷰

홍콩디자인센터(이하 HKDC)는 어떤 곳이며 한국지사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가?

2002년에 설립된 HKDC는 홍콩 정부의 디자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 세계 디자이너, 글로벌 기업, 국가 기관 등 디자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허브의 역할을 한다. 주요 사업으로 매년 개최하는 아시아 디자인 상(Design For Asia Awards, 이하 DFA), 전 세계 거장 디자이너, 기업, 정부 관계자가 교류하는 플랫폼인 디자인 사업 주간(Business of Design Week, 이하 BODW), 디자인 지식 주간(Knowledge of Design Week) 등의 국제 행사가 있고, 디자인의 창조적 역량을 육성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소규모 브랜드를 지원하는 플랫폼인 PMQ 등을 운영하고 있다. HKDC 한국사무소는 DFA와 BODW에 한국의 디자이너와 기업이

참가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과 홍콩의 디자이너와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알맞은 접촉점과 연결하는 일도 한다.

홍콩에서 한국 작가들의 전시를 열 계기가 있다면?

홍콩은 전 세계 모든 브랜드가 가장 먼저 런칭하는 세계 시장의 시험대다. 많은 나라의 다양한 수요자가 동시에 이목을 집중하는 이 도시의 매력은 예술, 문화 콘텐츠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적으로는 홍콩에서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를 열겠다는 것은 큐레이터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 품어 온 열망이다.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한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다는 점, 특히 K11이 한국의 디자인, 미술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왔다는 배경도 크게 작용했다.

K11의 5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로 홍콩 관객을 만나게 되었다. K11을 어떻게

섭외하게 되었나?

홍콩을 왕래하다 K11이 <In Art We Live> 라는 모토로 국제적 규모의 문화 행사를 꾸준히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백화점 전체가 미술 전시장인 데다, 세계의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K11 Design Store를 보유하고 있다. 곧 문화 콘텐츠가 소비로 직결되는 특징점이 있다고 판단해 다각도로 연락을 취했다. 홍콩 정부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디자인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네트워킹 장인 BODW의 덕을 톡톡히 봤다. 이 행사의 수많은 모임을 통해 적절한 인사를 소개받아 전시를 추진할 수 있었다.

작가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나?

우리는 장르와 관계없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술가, 대량 생산의 경제적인 효율 생산 논리를 과감하게 뛰어넘는 디자이너를 찾았다. 말이 쉽지, 순수 미술 작가는 장인 정신(craftsmanship)을 갖기 어렵고, 디자이너는 비용의 한계나 소비자의 기존 요구를 뛰어넘는 창조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즉, 한 사람이 창조성과 장인성을 두루 갖추기란 매우 어려운 동시에 편견과도 싸워야 하는 일이다. 이 전시의 참여 작가들은 순수 미술뿐 아니라 디자인, 영화, 패션, 타이포그래피, 제품 디자인, 음악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시 제목도 <거침없이 한국디자인(Design Feisty)>이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콘텐츠를 재정비하여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 한국 디자인의 전시를 열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전시를 오픈하면서 K11 Design Store에 참여 작품 일부를 판매하며 물꼬를 텄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지역의 하이엔드 셀렉트숍, 쇼핑몰 등에서 작품을 판매할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다.



Photo by Hasisi Park